

신학적 측면에서 본 현대 한국종교의 조명

— 1945년 이후의 신학 —

김 광 식*

해방 이후의 기독교는 신사참배 문제와 보수진보간 대립의 문제로 혼미를 거듭하였다. 전자로 말미암아 소위 고려파 장로교가 분리독립되었고, 후자로 말미암아 기독교장로교와 예수교장로교가 분열되었다. 그러한 여파는 감리교 안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교파가 분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개신교의 최대교파인 장로교는 WCC 가입을 놓고 소위 에큐메니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분열되더니, 합동측은 수 없이 분열을 계속하여 120개 교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성결교와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등 각 교파가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거나 정통파 이단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그나마도 감리교만은 단일교단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신학적 자의식이 움트기 시작하던 시기인 1960년대는 토착화신학 논쟁으로 한국의 개신교 신학계에 일대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서양의 20세기 신학이 미증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는 신학자들이 한국에서도 무엇인가를 해 보아야 하겠다는 의욕을 일으켰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바람직한 생각이었을 뿐이고, 단지 몇몇 신학자들 사이에서 토착화라는 담론을 문제삼는 데 그치고 말았다. 유동식은 토착화의 근거를 성육신론과 더불어 십자가와 부활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경연의 신랄한 비판에 부딪쳤고, 급기야 토착화보다는 한국무속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신학사를 정리하는 연구와 함께 소위 풍류신학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윤성범은 단군신화를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풀고자 하였는데, 그의 해석의 최대 약점은 역사적 입증자료가 부재한다는 점이었다.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어떻게 단

* 연세대 교수, 신학

군신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면 결국 그의 가설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공헌은 그의 직관적 변증법 혹은 미학적 변증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숨씨·멋이라는 그의 미학적 변증법의 구성요소들은 특이한 사상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감은 두 요소로 갈라져 있는 재료를 의미한다. 이 두 요소를 무한히 접근시켜 하나의 곡선을 창출하는 것이 숨씨의 과제이다. 숨씨는 그 곡선을 아름다운 멋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성범은 신학의 갈등적 요소들을 조화미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상적 조화미는 誠 개념을 통하여 성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토착화신학이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면서 1970년대에는 서양의 정치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민중신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다가 해직된 교수들을 중심으로 민중신학이 논의되다가 1980년 광주민주화투쟁을 거치면서 민중신학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서남동의 민중신학은 김지하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동은 독자적 신학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안병무의 민중신학은 미국과 독일에서조차도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민중신학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성서해석의 독특성 때문이었다. 마가복음의 오클로스(oklos)를 한국의 민중과 비교한 것이라든지 케리그마(kerygma) 대신에 유언비어를 복음전송의 기본적 내용으로 파악하려는 것 등이 특이한 점이었다.

민중신학이 서양인들 혹은 제3세계인들에게 매력이 있었던 까닭은 그것이 다분히 해방신학적이기 때문이다. 꽤 많은 한국유학생들이 구미 각국에서 신학을 연구하면서 민중신학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면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신학계에서나 교회에서나 민중신학을 별로 거론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민중신학이 한국의 신학이기는 해도 한국인의 신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중신학은 분명히 한국 신학자들이 연구한 신학이고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생긴 문제들과 대결하는 가운데서 생긴 한국의 신학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 각자의 영적 생활이나 신앙적 결단을 문제삼는 신학으로서는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나 신학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문민정부 출현 이후에는 민주화투쟁이 후퇴한 가운데 민중신학은 빛바랜 것처럼 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다시 한 번 한국신학으로서의 토착화신학을 재론하고자 한다. 그것은 특히 60년대의 토착화논쟁을 의미 없게 반추하자는 뜻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신학을 위한 미래의 대안으로서 토착화신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인식하자는 뜻이

다. 사실상 이러한 후자의 의미라면 민중신학조차도 토착화신학의 일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비록 민중의 호응이 없는 민중신학일망정 한국인 신학자들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온 신학이기에 민중신학은 교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냉대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토착화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가 될 것이다.

토착화신학을 재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착화라는 신학적 개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혹자는 토착화를 단순히 혼합주의라고 생각하든지 혹은 복음의 변질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뿌리깊은 오해 때문에 토착화신학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숙명적으로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에서 토착화를 말한다는 것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유동식은 토착화를 성육신의 교리와 결부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착상이었다. 그러나 성육신을 자기비하와 영광이라는 의미에서 부정과 긍정의 논리로서 혹은 부정의 부정이라는 논리에서만 파악하였기 때문에, 유동식은 성육신교리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토착화와 성육신의 관계 대신에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그의 토착화개념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물론 토착화의 사건 속에 자기부정과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긍정이라는 논리가 들어 있음은 사실이다. 그것은 단지 부정과 긍정의 변증법적 논리로만 해소시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필자는 여기서 원초적 성육신과 부차적 성육신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예수의 탄생과 성장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등은 원초적 성육신에 속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 신학의 대전제로서 근본적 기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육신은 원형적 토착화하고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원형적 토착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형적 토착화의 가능근거가 된다.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모형적 토착화는 대소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대모델에 따라 구분하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및 종교개혁교회로 분류된다. 그러나 동방교회 안에도 무수한 소모델이 들어 있다. 다른 대모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모형적 토착화 혹은 부차적 성육신의 삼대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동방과 서방에서 각각 상이하게 토착화 내지 성육신하였고, 알프스 이북에서는 종교개혁교회로 발전하였다. 우선 동방교회에서는 기독교와 헬레니즘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 정교회가 성립되었다. 정교회는 삼위일체론과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 그리스 철학과 복음의 만남을 구체화시켰다. 이것은 동방의 성육신적 구원론 때문에 이루어진 토착화된 교리이다. 서방에서는 구원의 복음이 로마법의 근거에서 이해되면서 교회론이 발전되었다. 교회론의 구원론적 동기는 성례전과 성직계급과 교회법을 통하여 관철되었다. 동방의 교리는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으나 서방의 구원론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종교개혁 교회는 서방의 교회론을 수정하였으나 상당부분이 그대로 인수되었고, 동방의 교리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종교개혁교회는 독자적인 구원론을 칭의론과 예정설에서 발전하였다.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세 딸들인 삼대 교파를 거느리게 되었지만,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토착화된 혹은 성육신한 교회가 출현하였다. 동아시아 교회의 장자인 한국교회는 헬레니즘도 로마법도 게르만의 신비주의도 아닌 유불선과의 만남을 통하여 토착화되고 있다. 이 네 번째 모델인 동아시아 교회는 기존의 삼대 교파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관계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교회는 서양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델로서 발전하고 있다.

유불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토착화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속에서 유교는 규범적 기능(normative function)을 담당하고 있고, 불교는 조정적 기능(coordinating function)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교 혹은 무교는 시여적 기능(granting function)을 담당하고 있다. 기독교가 동아시아 사회 속에서 토착화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기존의 유불선의 영향과 그 틀 속에서 비로소 기독교가 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예를 들면, 아마도 우리는 유불선의 문화적 바탕에서 토착화된 동아시아 모델의 교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의 기본윤리인 효의 관행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봉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도 여전히 제사의 관행을 버릴 수 없어서 추도예배를 드리게 된다. 장유유서, 남존여비, 의리존중 등 유교의 가치관이 없어지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형태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다. 즉 장로집사제도의 선호, 여성안수의 반대, 파벌주의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 밖에도 주역사상에 물들어 있는 한국인은 예정설에 보다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것들 외에 보수적 심성까지 함세하여 한국교회는 교파를 불문하고 모두 장로교화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는 무교의 치성 드리는 관습과 불교의 영향으로 생겨난 기

독교적 영성의 토착화된 형태이다. 금식기도와 철야기도, 산기도 등이 거의 같은 의미에서 토착화된 영성의 형식들이다. 불교의 교리는 자아정체성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즉 참된 나를 찾으려는 것이 불교의 구원관이다. 여기서 특히 聖俗一如의 진리가 돋보인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의 제사 종교적 특징을 강화시켰다.

한국무교는 기복신앙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민간종교이다. 현대사회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파되었는데, 무교는 상대적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무교가 후퇴하였으나 무교의 신앙은 교회와 신자들 속에 내면화 되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신자들은 복받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찾아가서 신자들 자신의 허탈한 마음을 달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교파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장교회와 일부 감리교는 규범적기능을 강조하는 선비 같은 교회, 혹은 예언적인 교회이다. 기타 장로교회는 제사장 중심의 교회, 즉 스님 같은 성격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성회는 오히려 무당 같은 성격의 교회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선비 같고 스님 같고 무당 같은 신자가 있고, 신자 개인 속에도 이 세 가지는 공존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독특한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유불선의 덕분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교회 전체를 보더라도 이러한 특징들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더 연구할 과제는 토착화 신학이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金光植, 『宣敎와 土着化』(1975).
 _____, 『土着化와 解釋學』(1984).
 金容福, 『韓國民衆과 基督教』(1979).
 羅容和, 『民衆神學批判』(1984).
 文熹錫, 『民衆神學』(1977).
 민영진 외, 『韓國民衆神學의 照明』(1983).
 徐南同, 『民衆神學의 探究』(1983).

- 안병무, 『해방자 예수』(1979)
- 柳東植, 『韓國宗教와 基督教』(1965).
- _____, 『韓國神學의 鑛脈. 韓國神學思想史序說』(1982).
- 尹聖範, 『基督教와 韓國思想』(1964).
- _____, 『韓國的 神學-誠의 解釋學』(1972).
- 한완상, 『민중과 지식인』(1979).
- Kim, Yong Bock(ed.), *Minjung Theology*(Singapore: CCA/CTA, 1981).
- Spencer J. Palmer, *Korea and Christinity*(1967).
- Yun, Sung Bum, *Ethics East and West*, tr. by M. C. Kalton(Seoul, 1977).
- 朴鳳琅, 「基督教 土着化와 檀君神話 — 尹聖範 教授의 小論과 關係하여 三位一體의 解釋의 神學的인 문제를 중심으로」, 『思想界』 7(1963), 172-184쪽.
- 柳東植, 「基督教의 土着化에 대한 理解」, 『基督教思想』 4, 通卷 63호(1963), 14-20쪽.
- 尹聖範, 「桓因, 桓雄, 桓儉은 곧 하나님이다」, 『思想界』 5(1963), 258-271쪽.
- 全景淵, 「基督教歷史를 무시한 土着化理論은 原始化를 意味」, 『基督教思想』 通卷 65호(1963), 22-28쪽.
- Kim, Kwang Shik, “God in Humanity”, *The Faith in God and the Belief in Hananim*(Seol, 1992).